조계종 약진과 이웃종단 추문

[2019 종단 결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들이 안정과 갈등의 '냉온탕'을 오갔다면, 2019년은 조계종의 약진과 이웃종단의 얼룩진 추문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겠다. 조계종이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일신을, 태고종은 수장 교체 과정서 벌어진 파열음으로 갈등을, 진각종은 정신적 지도자인 총인의 자진 사퇴를 겪었다.

첫 발 뗀 백만원력과 성과

올해 조계종의 약진을 대표하는 사건은 바로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원행 스님의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지난 4월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불·법·승을 주제로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건립 △육해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불교복지 확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건립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 미래를 바꾸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계종의 이 같은 결집운동에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해 풀뿌리 불자들이 ARS와 저금통,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금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37년 도반의 길을 걸어온 현대판 장자 설매·연취 보살이 인도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을 희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써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선포 첫 해부터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의 건립 기반을 마련했다.

태고종 내홍 끝내 수습

지난해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태고종. 결국 지난 3월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원로회의가 이를 인준하면서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직위를 잃었다. 편백운 스님은 이에 불복해 사회법에 제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불신임으로 수장 교체의 아픔을 겪은 조계종은 올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약진을, 수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던 태고종은 올해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새 수장을 선출했다. 사진 왼쪽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는 조계종, 오른쪽은 편백운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태고종 중앙종회.

이런 과정에서 태고종은 제27대 총무원장선거를 실시, 前선암사 주지 호명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차기 총무원장으로 지난 5월 선출됐다. 하지만 전임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은 27대 집행부의 청사 진입을 막고, 행정공백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이 12월 19일 호명 스님에게 총무원장 직인을 인계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진각종 정신적 지도자 교체

아들 성추행 의혹과 본인의 폭언·갑질 논란이 불가진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가 지난 5월 '건강상 이유'로 공식 사퇴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진각복지재단에 근무하는 회정 정사의 친아들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총인일가를 향한 퇴진운동이 전개됐다. 특히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가 가세해 당사자의 처벌과 종단 퇴출 등을 촉구했다. 결국 회정 정사는 총인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가 추대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백양사 고불총림 해제

1996년 고불총림의 지위를 얻은 백양사가 20여 년 만에 총림에서 해제됐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향한 내부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급기야 △前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중앙종회가 총림 해제를 결의했다.

총림 해제의 첫 사례는 1999년 7월 영축총림이지만, 당시 통도사는 1998년 종단사태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해 정치적인 징계를 받은 것이어서 이듬해 다시 총림에 지정됐다. 결국 백양사는 내부의 비판과 원활하지 못한 총림 운영 등의 이유로 총림 해제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출범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 지난 9월 진행된 선거에는 6천여 비구니스님들 중 19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인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 측 지지자들이 과열돼 일부 흑색선거로 흐르는 양상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선거는 마무리됐다. 또한 선거 이후 양측이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하면서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불자들, 백만원력 결집불사 발원

금산사 백만원력 교구법회, 전주 수현사서 봉행

사부대중이 매일 100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금산사 교구법회가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열렸다.

12월 15일 전주혁신도시 수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하유호 108순례단장, 정동영 국회의원, 최용범 전북행정부시장, 지역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홍수자 신도회 부회장과 하유호 108순례단장은 불자들을 대표해 발우저금통을 전달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성공을 위해 이근재 전북신도회장, 김영섭·홍수자 부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그동안 각 가정에서 모아온 발우저금통을 전달하는 불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ARS전화로 즉석에서 불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성우 스님은 "금산사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모여 앞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도 부다가야에 다른 외국 사찰은 많지만 한국사찰이 없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부끄러웠다"며 "부처님 성지에 한국사찰을 세우고, 신도시마다 전법도량을 건립하고, 권역별로 불교요양원을 세우는 등 몇 가지 원력을 중심으로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발원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소종단 스님 위한 전통강원 개방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
문턱 없애 교육 기회 확대
"국내 출가자 자질 향상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스님들을 위한 전통강원이 문을 연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12월 18일 광주 운천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선암사 특별강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특별강원은 종단 구별 없이 모든 스님들이 전통강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졸업증서가 주어진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선교양종 대본산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강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스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강원을 마련했다"며 "시간이 없거나 군소종단 여건상 교육의 기회를 놓친 스님들이 직접 전통강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여건을 고려해 출퇴근과 편입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주 운천사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2020년도 특별강원 계획을 설명하는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

실제 조계종을 비롯한 일부 대형종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소종단은 출가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출가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기회가 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태고종 유일의 전통강원을 운영하는 선암사에서 전통강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선암사 특별강원 참가자격은 종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이면 된다. 또한 강의 방법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진행한다. 매주 수·목요일 2회에 진행되며, 수요일은 2시간, 목요일은 1박2일 또는 출퇴근을 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목요일에는 아침예불과 발우공양 등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할 수 있는 습의(習儀)를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 수준별로 편·입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1학년(치문반)은 초발심자경문·치문 △2학년(사집반)은 서장·선요·도서·절요 △3학년(사교반)은 능엄경·원각경·기신론·금강경 △4학년(대교반)은 화엄경 △공통은 의식·외전(교양, 문화)을 교육받는다.

전통강원 강주인 성천 스님을 비롯해 불교 경전 강의를 목우 스님이 맡는 등 명망 높은 강사진을 꾸렸으며, 기본강의 외에도 초빙강사를 통해 불교문화, 교양 등 현대적 교육과목도 담아냈다.

이에 대해 주지 시각 스님은 "전통강원에서 대중생활을 하지 않은 스님들은 일상적인 습의를 교육받지 못해 예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강원은 상설 교육을 통해 최대한 출가자의 예법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시각 스님은 또한 "선암사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비롯한 대외 활동이 미진했다. 이번 전통강원 개방은 모든 불교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함께 공유하는 도량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선암사는 대웅전 본존불 개금불사와 모바일을 통해 신도대중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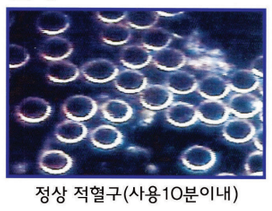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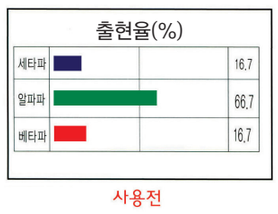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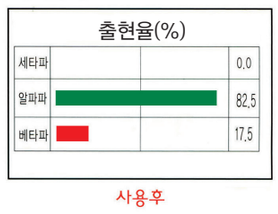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